[보도자료]

전자책 그 이상,

‘헬로월드 시리즈’ 100권 완간

- 귀로 듣는 책, 30분 독서 등 새로운 컨셉 제시

- 11일부터 100권 전체 2만9900원에 50년 장기대여

- 역사, 과학, IT, 서브컬쳐, 예술 등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백과

- 기성 유명작가의 새 작품 소개와 신인작가 발굴 역할까지

손 안의 지식 백과사전 ‘헬로월드 시리즈’가 11일 100권으로 완간됐다. 헬로월드 시리즈는 리디북스가 출판사 및 작가들과 손잡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꾸준히 출간해 온 교양문고 시리즈다.

영국 옥스포드대 출판부의 지식 입문서 ‘아주 짧은 소개’(VSI-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를 벤치마킹해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알찬 내용을 담았다. 헬로월드 시리즈는 100권 완간을 기념해 이날부터 9월 5일까지 100권 전체(정가 15만9000원)를 2만9900원에 50년 장기대여 형태로 선보인다.

헬로월드 시리즈는 지난 8개월 동안 다양한 화제를 뿌렸다. 헬로월드 시리즈가 처음 출간되던 지난해는 이슬람국가(ISIS)의 테러 위협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 때 국내 최고의 이슬람 전문가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학교’가 헬로월드 시리즈의 시작을 열었다.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아쉬울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올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화제가 되자 헬로월드 팀은‘알고도 당하는 북한 외교’(주성하) 책을 단 24시간 만에 출간했다. 비록 원고 초고가 완성된 상태이긴 했지만, 이후 편집 및 교정, 유통까지 24시간만에 후반작업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출판계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헬로월드 시리즈는 이후에도 넷플릭스의 1월 한국 진출에 맞춰 ‘넷플릭스’(박성표) 편을 발간했고, 3월부터 시작된 슈퍼히어로 영화의 잇단 개봉을 앞두고 ‘슈퍼히어로 전성시대’(김봉석) 편을 선보이는 등 빠르게 시사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책의 장점을 과시했다.

다루는 주제의 폭도 넓고 깊었다. ‘건담이 온다’(잠본이)처럼 국내 최고의 건담마니아인 저자가 서브컬쳐 현상을 깊이있게 다룬 서적부터,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를 다루는 ‘가려진 한국 알려진 일본’(노유니아) 등의 인문교양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있게 마련인 퇴사와 창업을 다루는 ‘제대로 회사 그만두는 100가지 방법’(오일리스킨)과 ‘소심해도 할 수 있는 1인 창업 노하우’(오일리스킨), 세상을 바꾸는 최신 기술업체들을 다루는 ‘테슬라’(박성표), ‘샤오미’(최호섭) 등 IT기업 시리즈까지 다양한 내용이 소개됐다. 수제 맥주 열풍을 타고 인기를 얻은 ‘비어투어리스트’(김태경)를 비롯해 새로운 캠핑 문화를 소개하는 ‘내 맘대로 솔로캠핑’(김석기) 등 생활밀착형 주제도 인기를 얻었다.

또한 헬로월드 시리즈는 전자책의 특징을 십분 살린 독특한 컨셉으로도 화제가 됐다. 우선 리디북스 앱의 ‘듣기’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편집자들이 활자를 최종 교열 보듯 원고를 직접 귀로 들어가며 음성까지 교열했다. 독자들은 출퇴근길이나 운동 중에도 독서할 수 있는 편리함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리즈 전 권을 200자 원고지 150-200매 분량으로 제작했는데, 이는 일반 단행본(800-1000매)의 5분의1 분량으로, 약 30분 독서 혹은 1시간 안팎의 듣기 만으로 완독할 수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루벤스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즐기는 독자들이 전시장을 오가면서 헬로월드 예술가 시리즈인 ‘루벤스’(김영은) 편을 비롯한 여러 예술가 시리즈를 읽곤 했다.

또 첫 출간 이후 3월말까지 진행된 1년 이용권 판매도 매월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정기 구독’ 형태의 단행본 구독 판매 모델이라는 독특한 방식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4월부터는 ‘10년 장기대여’의 형태로 특정 분야 도서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가격부담을 최소화한 동일 주제 도서의 세트 판매 모델을 선보인 바 있다. 이날 시작된 100권 50년 장기대여 또한 이같은 전자책 판매 실험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한편 리디북스는 헬로월드 100권 발간을 기념해 시리즈 가운데 높은 인기를 끌었던 헬로월드 시리즈 작가들과 리디북스 독자들 사이의 ‘댓글 대화’를 주선한다.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독자들이 박성표, 노유니아, 오일리스킨 작가의 책에 리뷰를 남기면 작가들이 이를 읽은 뒤 하루 1회씩 직접 해당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는 방식이다.

::헬로월드(Hello, World!)::

헬로월드 시리즈는 새로운 지식의 세상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며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다. 또한 헬로월드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익히거나 테스트할 때 작성하는 기초적인 프로그램으로,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헬로월드는 새로운 세상의 지식을 쉽게 배우며 입문할 수 있는 독특한 전자책 시리즈라는 뜻을 담은 브랜드명이다.

<참고: 헬로월드 인기 도서 Top 5>

1위: 제대로 회사 그만두는 100가지 방법(오일리스킨)

2위: 소심해도 할 수 있는 1인 창업 노하우(오일리스킨)

3위: 테슬라(박성표)

4위: 건담이 온다(잠본이)

5위: 비어 투어리스트(김태경)

\*7월 말, 누적 판매량 및 판매액 기준

<저자와의 리뷰 대화 이벤트 도서>

오일리스킨

- 제대로 회사 그만두는 100가지 방법(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051)

- 소심해도 할 수 있는 1인 창업 노하우(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10)

박성표

- 페이스북(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040)

- 구글(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073)

- 넷플릭스(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20)

- 테슬라(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04)

- 애플(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19)

노유니아

- 가려진 한국 알려진 일본(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17)

**<**참고자료**:** 헬로월드로첫책을낸신인작가들**>**

모두가 쉽게 글을 쓰지만, 작가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

전자책과 함께 작가가 된 우리 시대의 젊은 전문가들

자취방에서 우유와 ‘너구리’ 봉지 라면만으로 친구들에게 멋진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던 남자가 있었다. 취미는 요리, 특기도 요리. 하지만 그는 다른 친구들처럼 대기업 회사원이 된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꿈은 저 편에 있는데. 그래서 신민섭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의 요리학교 르꼬르동블루 서울캠퍼스에 입학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가 된다. ‘인생을 요리하자’, 신민섭 셰프의 첫 책은 자신의 인생 고비마다 함께 해 온 9가지 요리 레시피와 함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포기할 줄 알아야 얻게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지속하는 추억을 남기게 된다는 것. 그가 이야기하는 요리의 인생이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27

허구헌날 TV만 보던 ‘빠순이’가 책을 쓴다. H.O.T와 동방신기, 엑소와 샤이니 등을 쫓아다니던 그녀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득도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을 아이돌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깨달았다. 이제 한 때의 빠순이는 아이돌 산업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한다. ‘팬덤형’ 아이돌과 ‘대중형’ 아이돌의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고, 한국의 팬덤 문화를 내재적 분석으로 해석한다. 경제학 박사가 그녀의 글을 자신의 저서에 인용할 정도였고 결국 그녀는 책을 냈다. 이 책은 한국 아이돌 팬덤의 양질전환을 일으켰던 한 팬클럽에 대한 본격 분석. 동방신기와 그 팬클럽 카시오페아를 다룬 수안의 책 ‘동방의 카시오페아’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13

필명 ‘잠본이’는 한국의 건담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담 전문가. 건담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선라이즈 스튜디오가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하지만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가 미국 국적을 뛰어 넘어 세계 어린이들의 정서적 고향이 되는 것처럼 건담 또한 세계 청소년들의 친구로 함께 성장했다. 잠본이도 마찬가지였다. “건담의 주박에 걸렸다”던 그는 블로그와 잡지 기고 등으로 그치던 자신의 글을 책으로 확장시켜 새롭게 엮어낸다. 잠본이는 아마도 말 그대로 건담의 모든 것을 다루는 본격적인 건담 입문서를 펴낸 한국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책이 바로 ‘건담이 온다’이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18

블로그와 소셜미디어가 생기면서 모두가 작가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작가가 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1년에 6만 종이 출간된다는 신간 도서 가운데 화제를 모으는 책은 손으로 꼽게 마련이다.

좋은 작가가 없지만, 작가를 만들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걱정은 벌써 몇 년 째다. 좋은 책을 쓰는 작가도 없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불평도 그대로다. 하지만 작가를 만드는 출판사도 많지 않다. ‘1만부를 파는 저자’가 사라졌고,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후속작 경쟁만 벌인다는 탄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신인들에게 쉽사리 출간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저자가 되는 기회는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

헬로월드는 이 상황을 바꾼다. 충분히 글을 잘 쓰지만, 아직 ‘책’으로 묶을 만큼 긴 글을 써 보지는 않았던 예비 작가들이 헬로월드를 통해 훌륭한 작가가 됐다. 이미 전문적으로 책을 써 온 화려한 경력의 작가들과 신인들이 한 시리즈로 자신의 책을 소개한다. 제목과 리뷰만으로 독자들은 책을 결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은 더 많은 리뷰와 평가를 이끌어낸다.

헬로월드는 그렇게 작가를 만들어낸 시리즈였다. 대기업에 다니던 박성표 작가는 헬로월드 시리즈로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다섯 편의 IT 기업 이야기를 출간했다. 다섯 권을 묶으면 한 권의 종이책 분량이 나온다. 그는 이렇게 일종의 IT 기업 입문서를 펴 낼 예정이다. 글을 쓰는 게 좋았던 박 작가는 지금은 월간지 ‘그래픽 노블’의 편집장으로 직업을 바꿨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search/?q=박성표

하고 싶은 말이 그치지 않는 사람에게도 헬로월드는 좋은 경험이 된다. 원어민과 교육생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영어교육 서비스 ‘튜터링’의 창업멤버 최경희 이사는 헬로월드 ‘기웃기웃 진로탐색법’의 저자다. 폴앤마크와 링크스타트 등에서 여성과 학생들을 위한 ‘다른 방향’의 취업 컨설팅을 제공해 온 교육/취업 전문가가 그녀의 역할이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직업을 가진 그녀가 그 노하우를 책으로 써냈다. 글과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직업이었지만, 워낙 바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066

글을 쓰는 게 직업인 기자에게도 다를 바 없었다. 뉴스에이드의 강효진 기자는 ‘케이팝, 아이돌 그리고 홈마’의 저자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연예계에 대한 현장 르포 기사를 깊이있는 분석 시리즈로 써냈다. 뉴스에이드라는 신생 연예매체의 실험이었고, 한동안 모든 취재를 중단하고, ‘홈마’라고 불리는 팬들만 줄기차게 하루 12시간 이상 쫓아다니라고 지시하는 편집장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리고 강 기자는 결국 이미 출고했던 기사를 단행본에 맞춰 완전히 재구성하고, 추가 취재를 더해 완성도 높은 단행본으로 만들어 냈다. 기자에게도 책을 쓸 기회는 필요하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071

‘오타쿠 진화론’과 ‘손정의’를 쓴 이진석 작가는 자타 공인 오타쿠다. 에반게리온의 대사를 줄줄 외우고,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 한다. AKB48의 광팬인 데다, 일본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한달에 2, 3회씩 주말마다 일본을 오갔던 그였다. “월급 받아 전부 비행기 값에 쓰느냐”는 주위 핀잔에 결국 일본 유학을 결심했고, 지금은 와세다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능률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현장의 오타쿠가 펴내는 오타쿠 이야기와, 가장 존경하는 일본 기업인이라는 ‘손 상’에 대한 애정이 담긴 손정의 평전은 헬로월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들이 됐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search/?q=이진석

그리고 또 하나, 흔하디 흔한 캠핑 이야기를 결코 흔하지 않게 소개한 사람이 있다. 양양 어성전리 마을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김석기 작가. 아웃도어용품 회사에서 일하면서 캠핑과 관련된 온갖 지식을 섭렵했던 그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건 집을 떠나 자연을 느끼려고 떠난 캠핑장에 집을 또 만들고 있던 사람들. 집처럼 의자와 탁자를 갖춰야 하고, 집처럼 편하고 푹신한 잠자리가 필요하며, 집처럼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캠핑이 과연 캠핑일까. 모두가 함께 떠나야 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내 맘대로 솔로캠핑’을 제안한다. 혼자 떠나기 때문에 짐도 혼자 들 수 있을 만큼 적고, 짐이 적으니 음식도 간단히 해결하게 되며, 자연에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여행 말이다.

바로가기: http://ridibooks.com/v2/Detail?id=1959000116

헬로월드의 작가들에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보여주고 싶은 삶이 있으며, 나누고 싶은 취향이 있다. 헬로월드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이야기와 인생들. 좀 더 쉽고 편하게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이야기와 인생들이었다.